논어 12편 안연 3장 · 원문·풀이

司馬牛問「仁」。子曰：「仁者，其言也訒。」曰：「其言也訒，斯謂之『仁』已乎？」子曰：「爲之難，言之得無訒乎！」

독음 · 사마우문인 자왈 인자 기언야인 왈 기언야인 사위지인이호 자왈 위지난 언지득무인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어진 사람은 말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.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도 신중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司 맡을 사 사 / 馬 말 마 마 / 牛 소 우 우 / 問 물을 문 문

仁 어질 인 인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者 놈 자

其 그 기 / 言 말씀 언 언 / 也 어조사 야 / 訒 말더듬을 인

斯 이 사 사 / 謂 고할 위 위 / 之 갈 지 / 已 이미 이 이

乎 어조사 호 / 爲 할 위 / 難 어려울 난 난 / 得 얻을 득 득

無 없을 무 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